

13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14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나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신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아나케는 ‘운명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아나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나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나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인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계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오직 인과관계의 법칙성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기계론적 관점에서 아나케는 법칙성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이런 기계론적 관점의 아나케를 잘 보여 준다.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이라고 본 데모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 인과 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 이런 법칙성이 바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아나케이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에서 아나케는 질료적 조건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여기서 ‘질료(質料)’는,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形相)’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다.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나케는,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질료가 형상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나케는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나케는 운명이나 필연성을 신격화한 존재였다.
- ②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작용을 인정한다.
- ③ 아나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④ 플라톤은 질료가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현실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아나케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성격은 철학적 사유가 생겨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민준: 얼마 전 영화에서, 한 물리학자가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 나도 세계가 이런 분명한 법칙성만을 가지고 변한다는 그 물리학자의 생각에 동의해.

지애: 그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 ① ‘민준’과 ‘지애’는 모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민준’은 세계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만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계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지애’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민준’은 ‘지애’와 달리 역학적인 법칙들만을 세계의 유일한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를 정교한 기계라고 여길 것이다.
- ⑤ ‘지애’는 ‘민준’과 달리 세상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를 완전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3. 밑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파툼’은 일반적으로 운명을 의미하는데, ㉠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파툼은 인과 관계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법칙성이자 동시에 신의 섭리인 질서이다.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이에 의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성을 통해 터득해 나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 ① ㉠은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세계의 미결정성을 공고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신적인 세계를, ㉡은 원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고, ㉡은 법칙성을 지닌 질서라 할 수 있다.
- ⑤ ㉠은 무질서를 극복한 결과이고, ㉡은 이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국어 영역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는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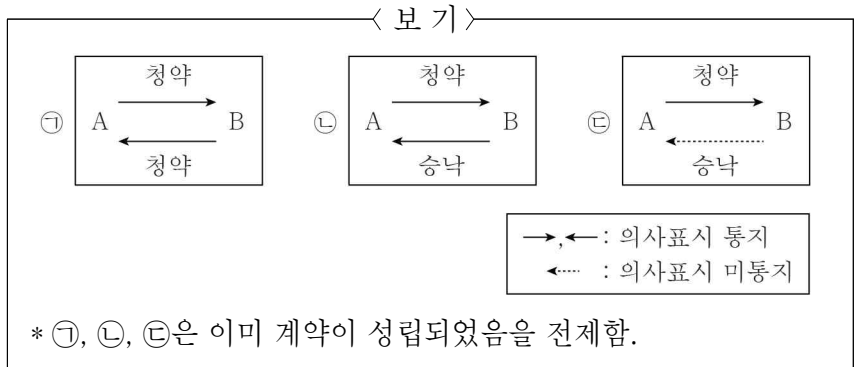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승낙기간: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구분하고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기술하고 있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각각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② ㉠의 경우,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지만 두 청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합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③ ㉡의 경우,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낙의 의사가 담긴 B의 말을 A가 들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④ ㉢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⑤ ㉢의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4월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을의 답장은 4월 22일에 도착했다.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맞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다.

- ①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 ②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 ⑤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굵은 빗방울이 지붕에 듣는다.
- ② 그 약은 다른 약보다 내게 잘 듣는다.
- ③ 나는 아내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다.
- ④ 그녀는 고지식해서 농담까지도 진담으로 듣는다.
- ⑤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국어 영역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 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섰거늘 놀라 고쳐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십 년에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전정(前程)에 해롭지 아니하리오?’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 염주를 고르며 일천 부처를 염하더니, 홀연 창 밖에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도다.’
동자와 한가지로 방장에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 등촉을 낮같이 켜고 소리하여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 섬돌에 내려 꿇어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에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아지 못하나이다.”
대사가 이르되,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 용궁에 가 술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 오히려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 여기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성진이 고두(叩頭)하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성진이 진실로 죄 있거니와 주계를 과하기는 주인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함이에요,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길을 뵈을 말미암음이니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방에 돌아온 후에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제자가 죄 있거든 사부가 달초(撻楚)하실 뿐이지 어이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리러 뵈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나이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네 만일 있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리오? 네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요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대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디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청령하거늘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라.”
[중략 부분 줄거리] 풍도로 끌려 간 성진은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팔 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 홀연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웃어 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잊음 험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변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심오록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심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職名)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변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년을 상종(相從)하였으리오?”

국어 영역

호승이 웃어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회통하뇨?”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㉔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 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풍도: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
 * 수책: 책망을 받음.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㉑ ~ ㉔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구운몽」은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주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특히 꿈속 경험이 단 하룻밤의 ‘꿈’임을 강조하기 위해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그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㉑의 ‘염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㉒의 ‘등축’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 득도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㉓의 ‘섬돌’은 주인공의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㉔의 ‘막대’는 주인공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소재이다.
- ㉔의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㉕ ~ ㉗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래의 도식은 「구운몽」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성진(+)'는 지향을, ‘성진(-)'는 회의를 의미하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소유(+)'는 추구를, ‘소유(-)'는 회의를 의미한다.

천상		지상		천상	
		적강	천상회귀		
성진(+) ㉕	성진(-) ㉖	→	소유(+) ㉗	소유(-) ㉘	→
				천상회귀	
				성진(+) ㉙	

-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㉕에서 ㉖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군.
-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으로 생각한 것에서 ㉖를 확인할 수 있겠군.
- ‘승상’이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다는 것은 ㉗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㉘의 ‘소유’는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 ‘성진’이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㉙의 성진이 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국어 영역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꽃잠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중수: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품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호호한 흉중: 넓고 넓은 가슴 속.
* 요잠반각: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단단 환선: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서의한: 맹세한, 약속한.
* 영허소장: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뢰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품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해설

②⑤④②①
④③①⑤⑤
①④③

[1~2] <출전> 이정우, 「개념-뿌리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이라고 본 데모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 인과 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를 보면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작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아낙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이 과정에서 아낙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1문단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아낙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애가 목적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의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를 보면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민준이 ‘나도 세계가 이런 분명한 법칙성만을 가지고 변한다는 그 물리학자의 생각에 동의해.’라고 말한 것과,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민준이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면 기계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애가 목적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민준이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면 기계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의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를 보면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세계를 정교한 기계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4문단의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낙케는,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를 보면 ㉠이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의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파툼은 인과 관계의 연쇄로 이루어진 세계의 법칙성이자 동시에 신의 섭리인 질서이다.’를 보면 ㉡이 법칙성을 지닌 질서라는 것은 적절하다.

① 4문단의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를 보면 ㉠이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이에 의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보면 ㉡이 세계의 미결정성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신적인 세계를 의미하지 않고, ㉡이 원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질서를 극복한 결과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보기>의 ‘인간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성을 통해 터득해 나가고’를 보면 ㉡이 이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4~7] <출전> 명순구, 「민법학원론」

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3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2문단에서 이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이고,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3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손해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정이 사려는 골동품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은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① (가)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아닌 계약으로, 2문단에서 이러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이 4월 12일에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하는 경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승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계약 성립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청약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승낙자는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가 승낙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이 매매 대상이 없어진 것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는 ‘다른 사람에게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③의 ‘듣고’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기계,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10] <출전> 김만중, 「구운몽」

8.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배경이 되는 시대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부와 ‘성진’의 대화에서 ‘성진’이 수책하는 원인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신장’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승상의 ‘소유 십오륙 세 ~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소유’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성진’이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에서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이해하기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은 ‘성진’이 꿈을 깨었을 때, ‘포단 위에 앉았으며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성진’이 꿈을 꾸고 있는 공간은 암자 안의 포단 위이므로, 대사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장의 ‘섬돌’이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성진’은 꿈을 깬 후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사실이 아닌 ‘하룻밤 꿈’인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천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진’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성진’은 ‘여덟 선녀’를 만난 후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회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승상’이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던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이므로 적절하다. ④ ‘소유’는 호승과 만난 후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11~13] <출전>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최 현, 「명월음(明月吟)」

11.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목수 이루어냈는고’와 (나)의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 이 구름 다 건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를 통해 대구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대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㉔은 ‘옥황’에게 말하여 묻고자 하는 걱정 대상인 현실 속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이들로 인해 임금 곁을 떠나지는 않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자신을 꺼리고 꾸짖는 대상이기에, 현실 속에서 작가를 질시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세력들로 인해 임금의 부름을 사양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을 ‘내 분수에 옳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은 ‘옥황’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현실 속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백옥루’를 ‘중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작가나 인재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신의 몸만 비추고 남을 비출 수 없는 ‘금작경’은 화자가 자신의 방에서 닦고 있는 대상이므로, 비추지 않는 구멍이 없는 ‘명월’에 비유된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먹은 뜻을 사퇴려한 것으로 보아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달빛이 구름에 가려 옛날의 빛을 잃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바람을 일으켜 부정적 대상인 ‘구름’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자신을 미미한 티끌과 흙인 ‘진토’로 인식한 결과 자신의 뜻을 ‘허사’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